

# 성경인가, 꾸란인가? 제 1 편

By 카람 김은수

성서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방법은 '이스나드'검증법입니다. 이 성서가 정말 100%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래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 어떤지를 이스나드 검증법을 통해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스나드'는 아랍어로 '연결고리'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사람들의 입으로 전달되는 정보는 정보전달자와 정보수용자 사이의 연결고리, 즉 이스나드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이 이스나드, 즉 연결고리가 단단한지 아니면 끊겼는지 등을 검증함으로써 전달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것이 이스나드 검증법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부산에 있는 대학생 장동민이 서울에 있는 친구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오늘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서울 E-Mart 에서 전품목 50% 대박 세일 중이래'

자, 우리가 이 전화통화 내용을 통해 얻은 정보는 '서울 E-Mart 에서 전품목 50% 세일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대학생 장동민군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전했고, 그 정보를 받은 아들이 자신의 친구에게 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연결고리가 형성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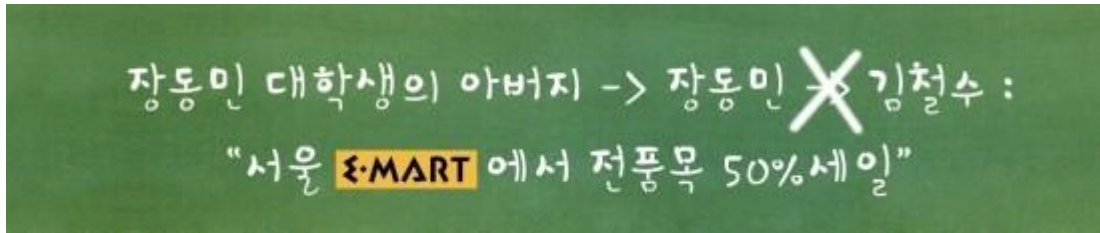


정보의 흐름을 이어주는 이 연결고리가 바로 '이스나드'인데요. 자 지금부터 이 연결고리를 검증해봅시다. 만약 장동민 대학생의 아버지가 '내가 아들한테 그 말 한적이 없는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기겠지요? 그러면 연결고리가 끊겼기에 "서울 E-Mart 에서 전품목 50%세일"이라는 정보는 신뢰성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만약, 장동민 대학생이 평소 양치기 소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거짓말을 일삼는 자라면요? 장동민이 정말로 아버지로부터 이 정보를 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으니 아버지와 장동민 사이의 연결고리는 끊기며 장동민이 실제로 그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었다고 해도 그 내용을 들은 대로 정확히 전달했는지 아니면 왜곡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니 장동민 대학생과 김철수 사이의 연결고리도 끊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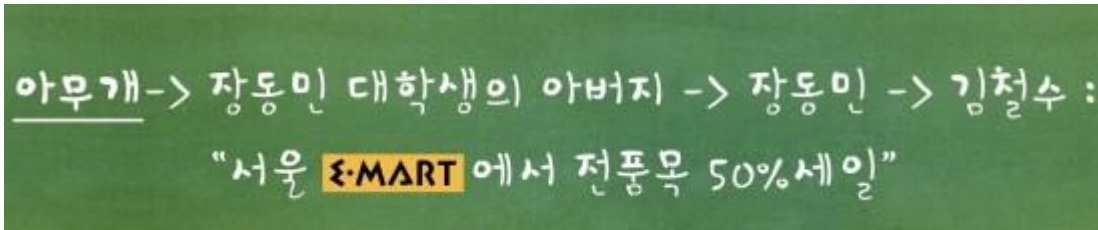


정보 전달자(장동민)의 자격에 심각한 훼손이 가해졌기에, 우리가 가진 이마트 세일에 관한 정보는 거짓 정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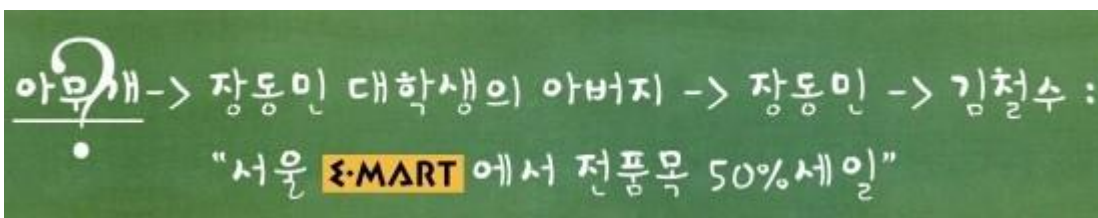


그리고 알고보니, 장동민 아버지가 아들처럼 부산에 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부산에 사는 장동민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E-Mart 의 소식을 전했다? 상황적으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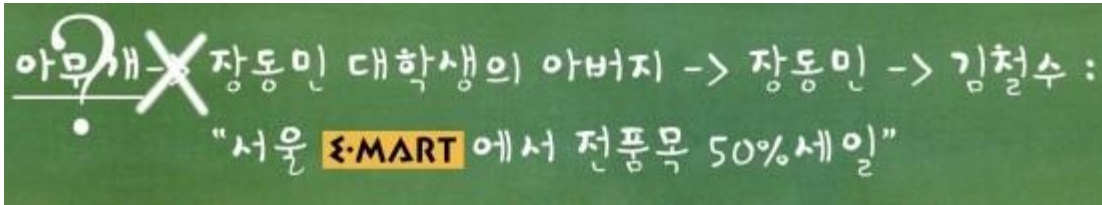
장동민 아버지는 직접 서울의 E-Mart 를 방문함으로써 세일 소식을 안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소스로부터 그 정보를 들어 그것을 아들한테 전달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원래는 이런 연결고리 도표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아무개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개가 서울에 사는지, 그래서 이마트에 방문했는지, 거짓말을 일삼는 자인지 아니면 정직한 자인에 그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전달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기에 아무개에 대해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 아무개가 장동민 대학생의 아버지 사이의 연결고리는 파괴되며 결과적으로 "서울 E-Mart 에서 전품목 50% 세일"라는 정보는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시를 통해 이스나드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정보 전달자와 수용자 사이의 연결고리가 깨진다면 우리가 받은 그 정보는 신뢰할 수 없다고 했구요. 연결고리가 깨지는 이유는 양치기 소년처럼 정보전달자의 자격이 의심을 받거나, 전달받은 정보에 대한 소스를 감추는 경우 등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강의는(제 2 편), 이러한 이스나드 검증법이 신약성서와 하디쓰, 꾸란 등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강의도 경청해주실 거죠? 그럼 전 이만 물러갑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 성경인가, 꾸란인가? 제 2 편

By 카람 김은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는 이스나드 검증법 제2편입니다. 혹시 1편을 보시지 않은 분 계시나요? 그렇다면 번거롭겠지만 제1편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편을 보지 않으신 분은 이 2편을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제 1편 읽기는 요기를 클릭해주세요! <http://blog.naver.com/eunsuya/220777630528>

저는 이스나드 검증법 제1편을 통해 이스나드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보 전달자와 수용자 사이의 연결고리, 즉 이스나드가 깨진다면 우리가 받은 정보는 신뢰하기 힘들다고 했구요, 연결고리가 깨지는 이유는 정보 전달자의 자격이 의심을 받거나, 전달받은 정보에 대한 소스가 불명확한 경우 등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이스나드 검증법을 성경에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나드 검증법을 통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 신약성서 '요한복음'에 대해 이스나드 검증법을 적용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이 전하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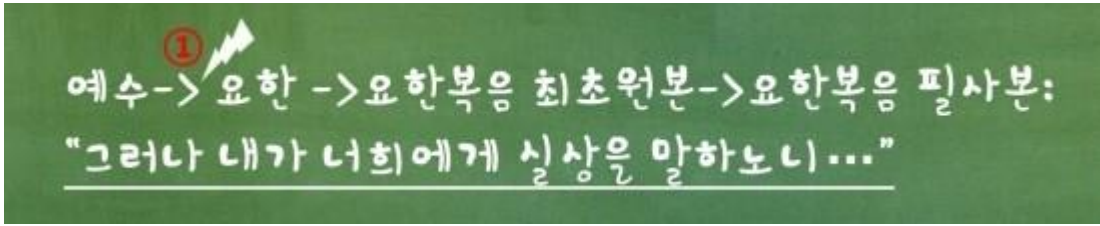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정보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 green rectangular box containing white text that reads: "예수-&gt; 요한 -&gt; 요한복음 최초원본-&gt; 요한복음 필사본: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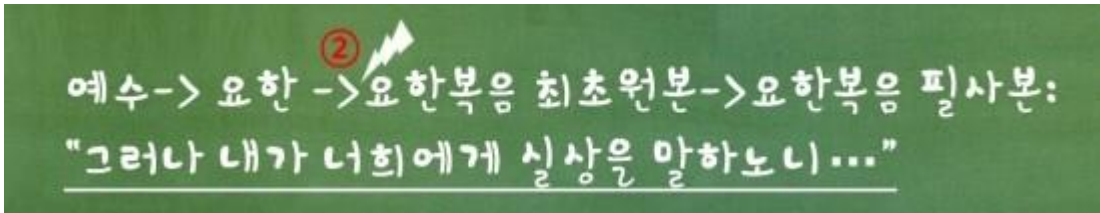
여기서 이어나드는, 즉 연결고리는 세 개입니다. 요한은 예수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  
고, 그가 들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최초원본에 기재한 것입니다. 그 원본을 누군가  
가 필사했고, 그 필사본이 필사에 필사를 거쳐 현재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  
니다.

첫번째 연결고리부터 검증해볼까요?



요한이 예수로부터 이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데, 그런가요? 예, 직접 들었다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요한이 예수를 직접 만났고 그와 함께 생활했고 예수의 제자로서 생활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이니 첫번째 연결고리에는 아무런 흠집이 없었습니다.

자, 두번째 연결고리를 봅시다.



예수가 말한 내용 그대로를 요한이 '요한복음서'에 기재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 요한 역사적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예수의 구사언어는 무엇이었나 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가 아니라 아람!어. 물론 당시 예수가 거주했던 삼 지역은 다양한 언어들이 구사되었지만, 예수가 일상어로 구사한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역사적 팩트는, 우리가 보는 성경의 가장 오래된 필사본은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재되었다는 것. 한국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히 브루어도 아닌 고대 그리스어로 기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역사적 사실을 조합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나요? 예수가 '아람어'로 말한 것을 요한이 '그리스어'로 기재한 것이 요한 복음서라는 이야긴데...왜 아람어로 들은 말씀을 그리스어로 기재했을까요? 흠...좀 더 깊게 생각해봅시다.

예수의 열두 제자 중의 하나인 요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아람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바다에서 고기잡는 일에 바쁜 나머지 살아 생전 정규 교육 과정을 밟지 않았구요. 한편, 그 당시 그리스어는 고등 교과과정을 밟은 엘리트들이나 쓰는 언어였습니다. 당시 어부였던 요한이, 낚시고 기억자도 몰랐던 아람어밖에 몰랐던 요한이 갑자기 엘리트들이 쓰는 고급 언어인 그리스어를 구사한다? 그것도 문학적 세련됨으로 빛나는 복음서를 그리스어로 기재했다? 더군다나 아람어로 들은 말씀을, 그리스어를 모르는 아람어 구사자가 왜 그리스어로 기록했을까요?

요한복음 최초본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그 사도 요한이 아닐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아지는 것입니다. 요한->요한복음 원본 사이의 연결고리가 훼손되는 순간입니다.

예수-> 요한 ~~X~~ 요한복음 최초원본->요한복음 필사본: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제로 다수의 성서학자들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적은 것이 아니라, 요한 학파라 불리는 신학공동체의 일원이, 한 명이 아닌 최소 두 명 이상이 기재했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요한->요한복음 원본 연결고리 사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스어를 유창히 구사하는 '아무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요한 -> 아무개-> 요한복음 최초원본->...

그러나 우리는 이 '아무개'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요한 학파'의 일원일 것이라 추측만 할 뿐, 그의 이름이 무엇이고, 언제 태어났고 언제 사망했고, 그의 신앙은 어떠한지,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진 자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 출처 불명이자 전승자 불명인 것입니다.

다만 요한복음의 최초 기술자가 이 복음을 통해 의도한 바는 알 수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구절의 내용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즉 이 '아무개'가 이 요한복음을 기술한 이유에는 그의 특정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대한 그의 믿음,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그의 믿음을 다른 사람

들도 똑같이 믿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의 의도는 후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그의 이해와 주장,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은 하나님 자체다 라는 주장은 그의 바람대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 이 '아무개'는 요한 이후의 세대였을 터이고 그렇다면 아무개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에 대한 그의 이해가 정확한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아무개의 이해가 틀렸다면 어떻게 하죠?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명예로운 피조물이었다면요?

다시 원주제로 돌아가봅시다. 요한이 그리스어를 구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람어로 들은 예수의 말씀을 그리스어로 기재했다는 가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그리스어를 알고 있었다는 가정 하에서는 어떨까요? 문제가 완전히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람어로 언급된 예수의 말씀을 요한이 직접 그리스어로 번역되어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문제는 지속됩니다. 그 문제는 바로 번역 과정에서의 의미

손실입니다. 어떻게 의미손실이 일어나냐구요? 제1편에서 언급했던 E-Mart 대박 세일 이야기로 돌아가봅시다. 거기서 번역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살펴봅시다.

우리는 제1편에서 다음과 같은 이스나드를 공부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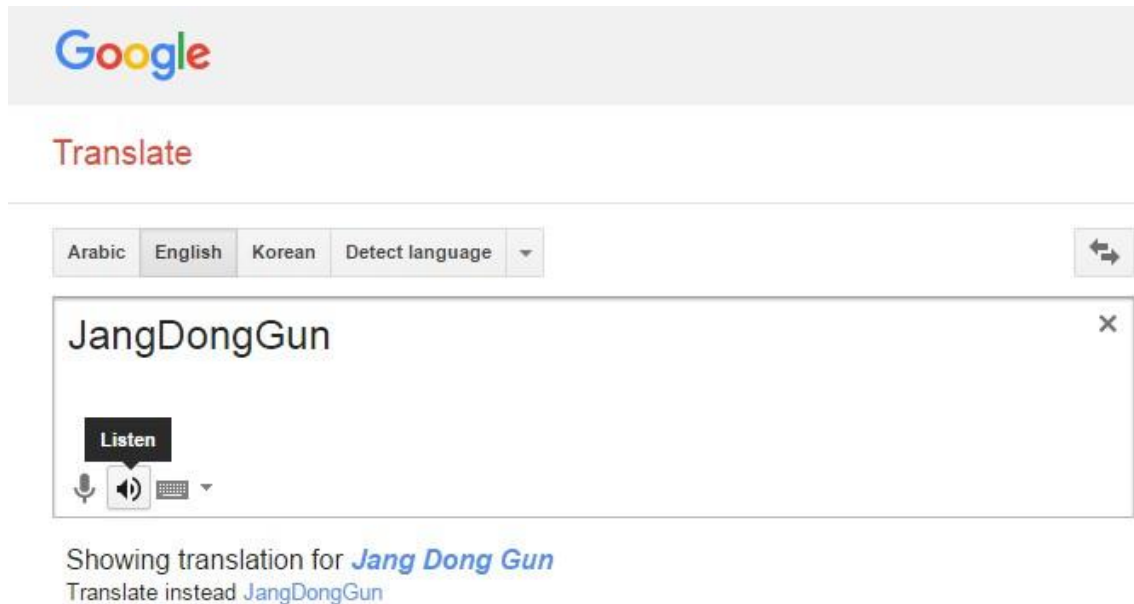


자, 여기서 장동민 대학생의 아버지의 이름이 '장동균'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걸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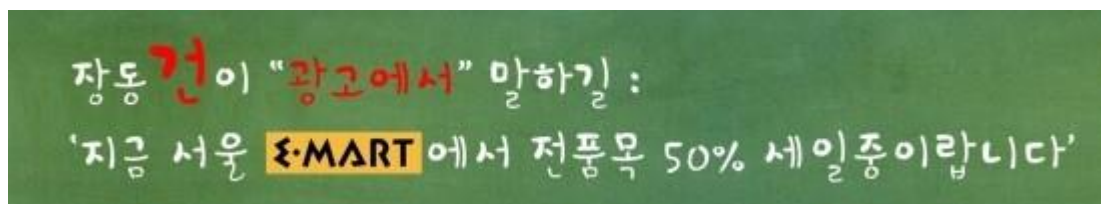
장동균을 JangDongGun이라 표기했습니다. 이 표기를 보고 영미권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할까요? 영어에는 '건'과 '균' 발음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십중팔구 '장동건'이라 발음할 것입니다. 구글 번역 사이트 <https://translate.google.com> 에

들어가신 후 JangDongGun을 복사하여 붙여넣은 다음에, 마이크 버튼(Listen)을 클릭하여 성우의 발음을 들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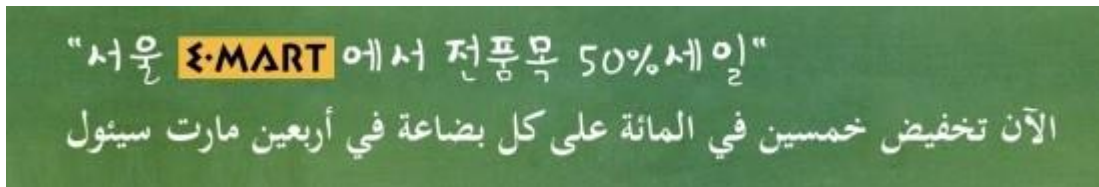
'장동건'으로 발음하죠? ㅋㅋㅋ

이 발음을 들은 한국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 장동건...장동건...연예인 장동건? 와우! 그런데 왜 장동건이 이 말을 했지? 번역에는 문맥이 중요하니 문맥을 고려해야지. 장동건이 괜히 이 말을 했겠어? CF에 출연했으니까 이 말을 한 거지! 그럼 이렇게 번역해야겠네.



잘 보세요. 영문 번역으로 인해 일반인이 연예인으로 변경되었고, 본문에 충실하지 않고 문맥에 치중하다 보니 전화상 통화가 광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언어간 번역으로 인해 본문의 의미가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지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어였구요, 이제는 아랍어로 한번 번역해볼까요?



아랍어 독자는 번역된 아랍어 문장에서, E-Mart를 '아르바인 마트' 로 읽습니다. '아르바인'은 40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마트를 사십마트로 읽을까요?



이런 연유로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아랍인은 처음 이마트를 보면 십중팔구 아르바인 마트라고 읽는답니다 ㅋㅋㅋ

이 아랍어 번역을 들은 한국 번역가는 이제 자기가 들은 대로 '지금 서울 40마트에서 전품목 50% 세일' 이렇게 적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40마트가 어디에 있는 데요?' 어떻게 해서든 답변을 해야 하니 번역가는 이제 신비주의로 답합니다. '어, 그거? 그 마트는 미지의 마트야.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자동으로 세일 정보 문자가 가서, 그 특정인들만 세일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신비의 마트...' 일반 통화 내용이 줄지에 신비주의적 비밀전달로 왜곡되어 버리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번역으로 인해 원문의 의미가 왜곡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봅시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예수)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보혜사는 그리스어 '파라클레토스'(Παράκλητος : Parakletos)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예수(그에게 평화가 깃들기)께서는 아람어로 어떤 단어를 말씀하셨고, 그것을 들은 요한은 그 아람어 단어를 고대 그리스어 '파라클리토스'(Παράκλητος : Parakletos)로 기재한 것입니다.

파라클리토스의 원뜻은 '조력자,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이후에 올 존재를 '파라클리토스' 즉 조력자, 변호자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

한 정보입니다. 예수 이후에 누군가가 온다는 것인데...누굴까요?

이슬람에서는 그 존재를 무함마드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 존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즉, 무함마드는 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들은 대로 전달할 것이며 장래의 일, 즉 죽음 이후의 세계와 심판의 날의 양상 등을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이지요.

이슬람은, 이 파라클리토스라는 단어는 원문의 번역된 표현이기에 그 의미가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거나, 혹은 전승 과정에서 왜곡이 이루어진 표현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제시하는 정확한 표기는 '파라클리토스'가 아니라 '페리클리토스'.

파라클리토스 Παράκλητος Parakletos

페리클리토스 Περικλυτος Periklytos

아무리 봐도 두 단어가 비슷해보이죠? 제가 봐도 비슷합니다 ㅋ.

'페리클리토스'의 뜻은 '칭찬받는 자, 존경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아랍어로 옮기면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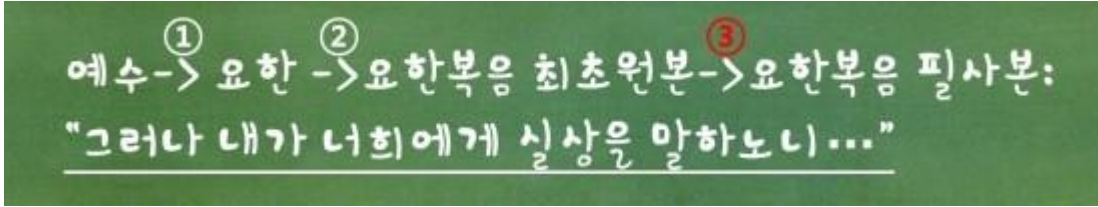
'무함마드'(محمد)입니다!

예수께서 예언한 존재는 '보혜사'가 아니라 무함마드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요.

기독교인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성경은 문맥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한 문장만 보면 안 되고 다른 구절도 봐야 한다. 다른 구절에 의하면 이 보혜사는 성령이다'.

맞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의하면 이 보혜사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설명이 삼위일체설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삼위일체설에 의하면 예수와 성령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일체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말하나요? 예수께서 '내가 떠나야만' 보혜사가 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어, 성령은 예수 당시 존재하고 있지 않나요? 왜 예수가 떠나야만 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설에 따르면 보혜사는 성령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예언하신 그 존재는 바로, 예수 이후에 올 예언자 무함마드라는 주장은 그렇기에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연결고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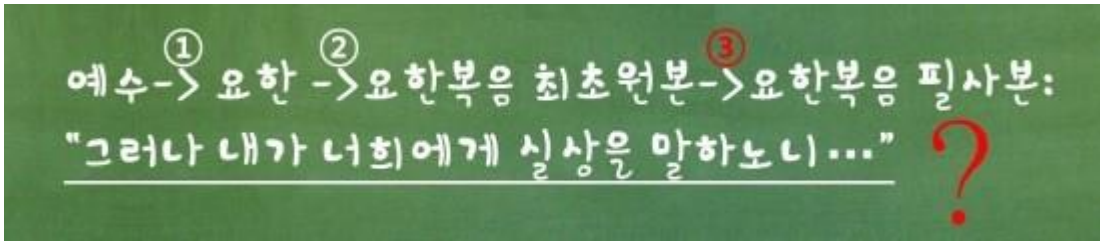


모든 기독교 학자들이 동의하고 기독교 일반신도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은, 신약 사대복음의 최초 원본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원본을 필사하고 또 필사한 후에 번역을 거쳐 나온 결과물인데, 아쉽게도 그 필사본과 최초 원본을 대조해서 비교해보는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최초 원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기관 등에서 문서의 복사본이 제시되면 어떻게 하죠? 그 사본이 원본과 일치하는지의 대조 작업을 하겠죠. 이게 정말 원본과 내용이 일치하는가 하는 사본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성경은 이 원본 대조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최초 원본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원본과 필사본과의 대조가 불가능하기에, 세번째 연결고리도 두번째 연결고리처럼 그 정확성에 의문에 제기되는 것입니다.



최초 원본과 필사본이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함에도 그 가능성이 현실로 발생했는지 어땠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 성경 필사 과정에서의 첨가, 삭제, 왜곡 등의 현상은 역사가 뒷받침하는 사실입니다. 못 믿겠다구요? 성경 필사 과정에서 첨가, 삭제 등은 없었다구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께요.

요한복음 제8장 1-11절을 보면, 한 여인이 간통죄로 예수(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앞에 불러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그대들 중에 죄 없는 자라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라고 말하시면서 이 여자를 용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워낙 사람들 사이에 잘 알려진 내용이라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조차도 한번씩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이 내용은 초기 신약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후대에 첨가된 에피소드인 것이지요. 왜냐구요?

초기 사본을 봅시다. 가장 오래되었다는 1세기 말의 파피루스 66, 2세기 말의 파피

루스 75, 4세기에 필사되었다는 가장 오래된 그리스어 성경 사본인 바티칸 사본, 시나이 사본을 살펴봅시다. 이 어떤 사본에도 이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못 믿겠 다구요? 그럼,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파피루스 66 을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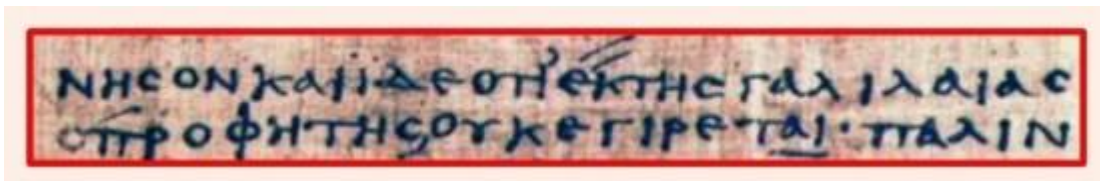


아래 빨간색으로 네모친 부분은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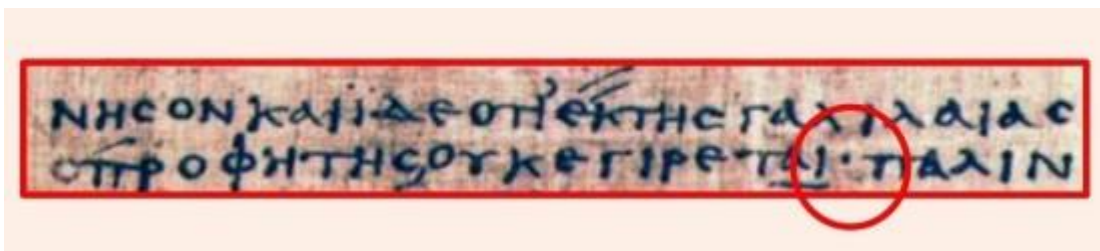
파피루스 66



네모친 부분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세요.



8장 1절부터 11절이 있어야 할 자리이지만 그 구절은 이 사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침표만 있네요. 이 마침표 이전에는 요한복음 7장 52절이 있고 마침표 후에는 8장 12절이 시작됩니다.



즉, 파피루스 66에는 8장 1절과 11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초기 사본에도 그 구절은 없습니다. 즉, 우리는... 초기 성경 사본에 없는 내용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필사본 사이에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최초원본과 필사본 사이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확신이 아닌 추측에 의존하는 이스나드(연결고리)는 그 정확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금껏 여러 방안을 통해 성경에 이스나드 검증법을 적용해보았습니다.

결론은, 이스나드 검증법에 의하면 성경은 그 정확성 측면에서 많은 훼손이 가해진 성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저자인가? 요한이 들은 아람어가 정확한 내

용으로 그리스어로 기재되었나? 그리스어로 전달될 때 의미의 왜곡은 없었나? 최초 원본은 존재하는가? 원본과 사본 사이의 내용 불일치는 없는가?  
이스나드 검증법을 적용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들에 대한 대충의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꾸란은 어떨까요? 이러한 '철저한' 이스나드 검증법에 꾸란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음 강의를 통해 그 면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성경인가, 꾸란인가? 제 3 편

By 카람 김은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는 '성경인가, 꾸란인가?' 제 3편입니다. 제 3편은 제 1편과 2편을 먼저 들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 테니, 우선 1편과 2편부터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1편 <http://blog.naver.com/eunsuya/220777630528>

제 2편 <http://blog.naver.com/eunsuya/220777656971>

우리는 '성경인가, 꾸란인가?' 제 1편을 통해 이스나드 검증법이 무엇인지,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화를 예시로 들면서 그 내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2편에서는, 이스나드 검증법을 성경에 적용하여 이 검증법이 성경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서에 이스나드 검증법을 적용한 결과, 성경의 연결고리에는 그 훼손이 심각하여 성경 본문 내용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제3편을 통해, 이슬람의 근거가 되는 꾸란과 하디쓰에 이 이스나드 검증법을 적용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나드 검증법은 꾸란과 하디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우선 꾸란과 하디쓰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꾸란이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무함마드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함마드를 그분의 마지막 사도로서 선택하셨고, 그에게 그분의 말씀을 계시하시어 그 계시가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보존한 것이 바로 '꾸란'입니다.

하디쓰는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가 한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무함마드 언행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은, 자신의 욕망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류에게 전달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무함마드의 말씀은 이슬람에서 꾸란과 함께 중요한 텍스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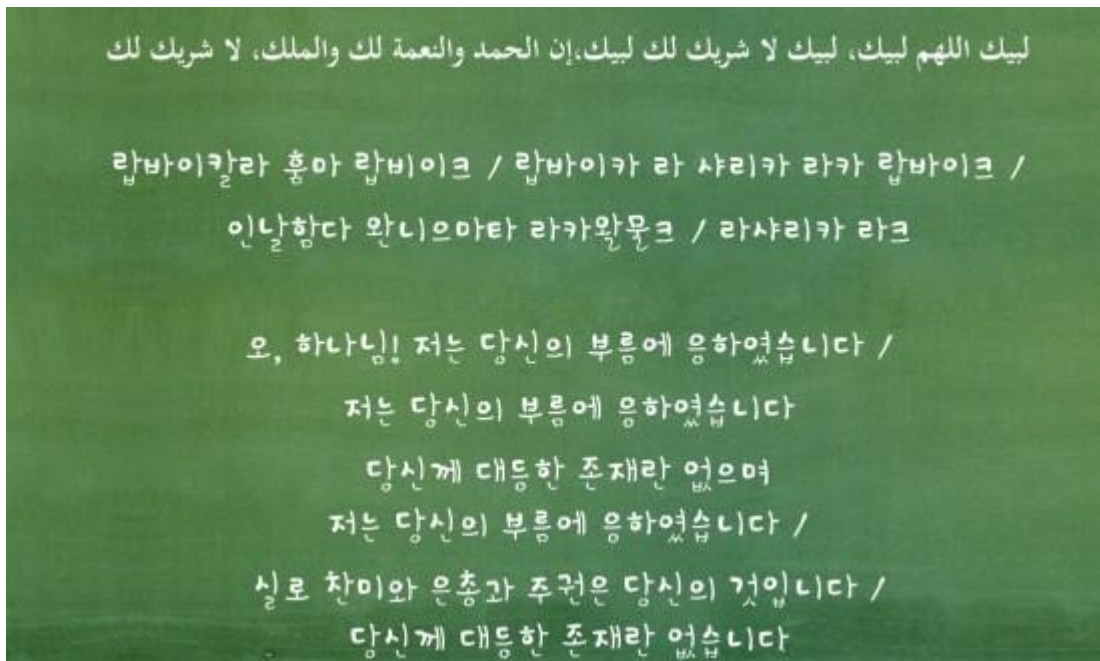
그렇다면, 약 1400년 전에 계시된 꾸란과 하디쓰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된 것일까요? 성경과 마찬가지로 꾸란과 하디쓰 역시 그 정보 전달에 있어 연결고리, 즉 이스나드가 사용되었고, 우리는 그 연결고리를 검증함으로써 꾸란과 하디쓰의 정확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꾸란과 하디쓰를 검증하기 이전에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슬람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의 전원일치 의견은, 꾸란의 연결고리가 하디쓰의 연결고리보

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꾸란 연결고리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하디쓰 연결고리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디쓰의 연결고리가 입증된다면 꾸란의 연결고리는 자동적으로 입증될 것입니다. 약한 것이 검증을 통과했다면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자동적으로 검증에 통과할 테니까요.

전송되고 있는 하나의 하디쓰를 예시로 들어 연결고리에 대한 이스나드, 즉 연결고리 검증에 들어가보겠습니다. 하디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께서 성지순례를 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요한복음에 기재된 예수의 말씀을 검증한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무왓따'라는 하디쓰 전집에 기재된 이 하디쓰를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나드 검증법

은 제 1편에서 이마트 세일을 예시로 들어 간단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스나드 검증법은 '전승자'와 '연결고리' 두 측면에서 이스나드를 체크합니다.

첫번째 측면은 전승자입니다.

전승자-> 전승자 : "본문"

전승자가 누구인가? 그의 신앙과 암기력은 어떠한가? 신앙심이 뛰어나 '거짓말 없이' 전달하는지, 그리고 암기력이 훌륭해 '틀림없이' 그 내용을 전달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전승자의 신앙심이 좋다고 하더라도 암기력이 부족해 정확한 정보 전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아무리 암기력이 풍부하더라도 전승자가 악행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는 자라면 우리는 이러한 전승자로부터 전달되는 하디쓰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전승자는 있지도 않은 내용을 조작하여 이것이 예언자의 하디쓰다 주장할 수 있으며, 하디쓰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거나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측면은 연결고리입니다.

전승자-> 전승자 : "본문"

전승자의 검증이 끝났으면 전승자와 전승자 사이의 연결고리는 잘 형성되는가를 판단합니다. 그들이 만약 동시대 사람이 아니었다면 혹은 너무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아 그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극히 적다면 이 연결고리는 제대로 성립할 가능성이 적어지며 따라서 이러한 연결고리로 전승된 정보는 그 정확성과 신빙성이 의심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제 2편에서 보여드렸듯이 이러한 이스나드 검증법을 온전히 통과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디쓰에 이스나드 검증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디쓰에 사용된 연결고리는 다음과 같이 4개입니다.

무함마드->이븐 우마르->나피으->말리크->'무왓따' :  
"랍바이카라훔마 랍바이크"

첫번째 연결고리부터 봅시다. 무함마드->이븐 우마르

무함마드->이븐 우마르->나피으->말리크->'무왓따' :  
"랍바이카라훔마 랍바이크"

무함마드 :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가 사도직을 받기 전의 생활과 후의 생활 모두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예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니 '전승자'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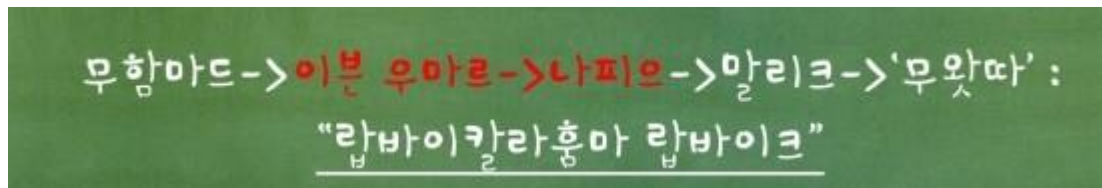
이븐 우마르 : 이븐 우마르의 '이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븐 우마르는 우마르의 아들이라는 뜻이구요. 이븐 우마르의 아버지 우마르는 이슬람의 제2대 칼리파인 우마르 이븐 알-카타입입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이븐 우마르인 것이지요. 이븐 우마르의 본명은 압둘라입니다. 그는 메카에서 태어나 693년, 즉 히즈리력 73년에 메카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의 전기는 여러 서적을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그의 생애와 신앙심은 잘 알려져 있기에 '전승자' 측면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븐 우마르는 아버지 우마르와 함께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와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이븐 우마르는 무함마드와 직접 대화하였고 그분과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았기에 전승자 사이의 '연결고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함마드->이븐 우마르 사이의 연결고리는 단단합니다. '전승자' 측면과 연결

고리 측면에서 모두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마치 예수->요한 사이의 연결고리가 단  
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두번째 연결고리는 이븐 우마르->나피으 입니다.



나피으 : 나피으는 메디나에서 거주하였고 히즈리력 11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나피  
으는 어렸을 적부터 이븐 우마르의 몸종이었습니다. 따라서 나피으는 이븐 우마르  
와 아주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이븐 우마르가 전하는 하디쓰를 암기하고 그로부터  
이슬람 학문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의 학식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  
었기에, 당시의 통치자는 그를 예멘 지역의 회사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였  
고, 그를 이집트로 보내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븐 우마르->나피으 사이의 연결고리는 단단하며 ‘전승자’ 측면이나 ‘연결  
고리’ 측면에서 그 어떤 비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번째 연결고리는 나피으->말리크 입니다.

무함마드->이븐 우마르->나피으->말리크->'무왓따' :  
"랍바이카라훔마 랍바이크"

말리크 : 말리크는 메디나에서 거주하셨고 히즈리력 93년에 태어나셔서 17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말리크는 이슬람의 4대 학파 중 '말리키' 학파의 원천이 되는 위대한 학자이십니다. 말리크는 나피으로부터 여러 하디쓰를 전수받았고, 그는 자신의 하디쓰 전집 '무왓따'에 나피으로부터 전승받은 약 60여개의 하디쓰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피으와 말리크는 동시대 사람으로서 모두 메디나에 거주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나피으-> 말리크의 연결고리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승자들은 모두 신앙심과 기억력이 뛰어났고, 두 전승자들은 동시대 사람으로서 서로 만나고 배우고 익혔기에 '전승자' 측면과 '연결고리' 측면에서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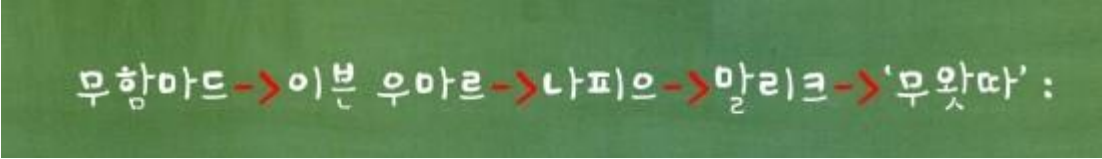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네번째 연결고리는 말리크->무왓따입니다.

무함마드->이븐 우마르->나피으->말리크->'무왓따' :  
"랍바이카라훔마 랍바이크"

말리크는 메디나에 거주하면서 스승들로부터 전승받은 하디쓰를 자신의 저서 '무왓따'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생전 '무왓따'를 동시대 학자들에게 보여주며 그들로부터 그 내용을 검증받았습니다.

그러니 말리크가 <무왓따>의 저자라는 사실, 즉 말리크->무왓따의 연결고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승되어 내려온 '무왓따'는 지금까지 그 내용이 변함이 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록언어 측면에서 살펴보면



무함마드->이븐 우마르->나피으->말리크->'무왓따':

이븐 우마르, 나피으, 말리크 모두는 무함마드께서 하신 '아랍어' 말씀을 들어서 암기한 후 그 내용을 '아랍어'로 전달하였습니다. 요한->요한복음 처럼 '아랍어'로 들은 내용을 '그리스어'로 기재하였기에 저서와 저자 사이의 연결고리가 의심을 받거나, 그 기재내용에 정확성을 의심받는 일은 하디쓰에는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전승된 하디쓰는 지금 이 시대까지도 아주 잘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븐 우마르가 들은 무함마드의 말씀은 '랍비아칼라 흠마 랍바이크'입니다. 이 말은



현재 지금까지도 무슬림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고, 성지순례를 할 때 무함마드가 말한 그대로 '랍바이칼라 훔마 랍바이크...'라고 읊조리면서 의식을 진행한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유튜브에 등록되어 있는 성지순례 동영상을 한번 들어보시죠~성지순례에 참여하는 남녀 모두 무엇을 읊는지 들어보세요.

<https://youtu.be/C3d-RVBkpP4>

자, 우리는 지금까지, 결점 없이 정확히 전승되어 내려오는 하디쓰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승자'와 '연결고리' 측면에서 하디쓰는 그 훌륭함을 검증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이러한 설명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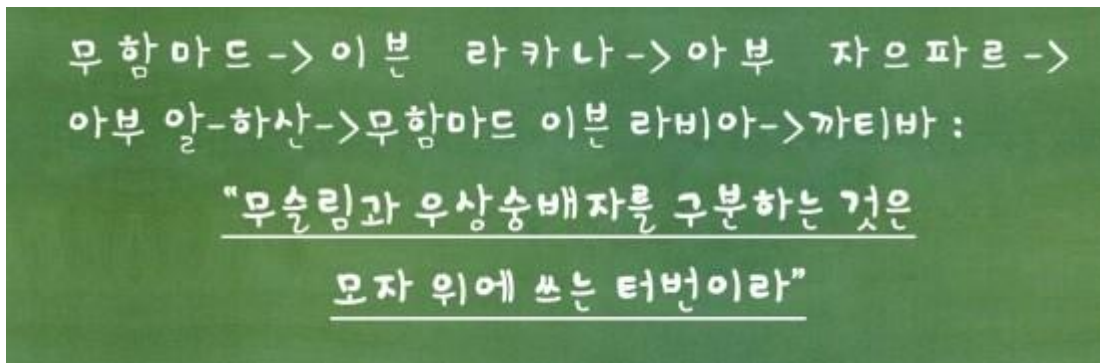
"하디쓰가 항상 저 연결고리로만 전승되어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가장 강한 전승고리만 보여주고선 '하디쓰는 이렇게 전승되니 모든 하디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좋은 지적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하디쓰가 항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강한 연결고리로만 전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경우처럼 전승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하디쓰가 성경과 다른 것은, 그러한 경우, 즉 연결고리가 불분명하거나 약할

경우 그 하디쓰를 '다이프' , 즉 빈약한 하디쓰로 분류하여, 그것을 이슬람 학문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전승고리가 약한 '다이프' 하디쓰는 그 신빙성에 의심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전승고리로 전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승되는 하디쓰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슬림과 우상숭배자를 구분하는 것은 모자 위의 터번이라" 하나님의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과연 그럴까요? 연결고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하디쓰를 수집한 학자 앓-티리미디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 연결고리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는 아부 알-하산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무함마드->이븐 라카나->아부 자으파르->  
아부 ~~야~~하산->무함마드 이븐 라비아->까티바 :  
“무슬림과 우상숭배자를 구분하는 것은  
모자 위에 쓰는 터번이라”

"이븐 라카나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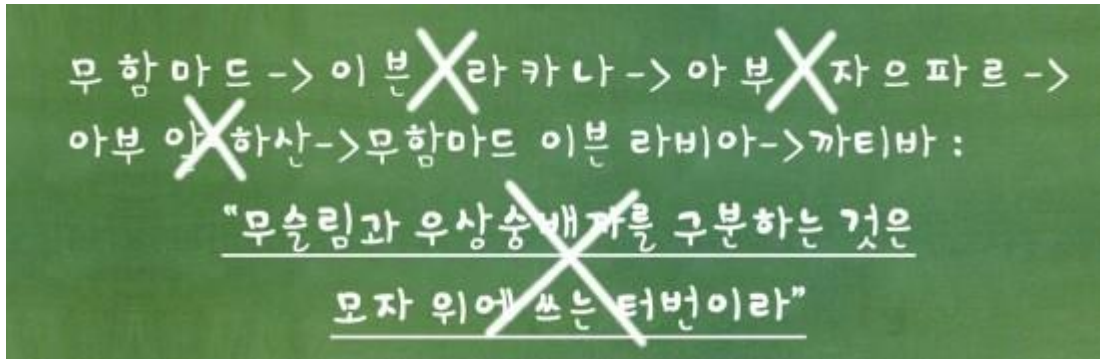
무함마드->이븐 ~~라~~카나->아부 자으파르->  
아부 ~~야~~하산->무함마드 이븐 라비아->까티바 :  
“무슬림과 우상숭배자를 구분하는 것은  
모자 위에 쓰는 터번이라”

하디쓰 학자 앓-다하비는 이 하디쓰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부 자으파르가 누구인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면서

무함마드->이븐 ~~라~~카나->아부 ~~자~~으파르->  
아부 ~~야~~하산->무함마드 이븐 라비아->까티바 :  
“무슬림과 우상숭배자를 구분하는 것은  
모자 위에 쓰는 터번이라”

이 하디쓰는 "조작된 하디쓰"라고 하였습니다.

3명의 전승자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연결고리는 망가지게 되고, 따라서 위의 언급이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께서 하신 말씀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슬람은, 하디쓰라고 주장되는 말이라고 해서 그것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라 주장되는 언급이 있다면, 그 전승고리가 온전한지, 즉 전승자의 신앙과 암기력 등에 관한 정보가 있는지, 그리고 전승자들 사이의 연결고리는 제대로 서는지 등을 평가한 후에 그 하디쓰의 레벨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싸히흐'(권위있음)나 '하산'(훌륭함) 등으로 평가된 하디쓰는 받아들여지지만 '다이프'(허약함)이나 '마우두으'(조작됨) 로 평가된 하디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스나드 접근법에서 보면, 성경은 '다이프'나 '마우두으' 전승의 집합체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 실린 간통녀와 예수의 에피소드는 없었던 내용이 조작되어 실렸기에 '마우두으'(조작됨)로 평가되는 것이고, 요한복

음의 최초원본 기록자가 요한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승고리에 문제가 제기되며 따라서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의 내용들은 '다이프' 하다 라는 평가가 내려질 것입니다.

이슬람이 '타우라'(토라)와 '인질'(복음)의 원본의 존재는 믿으면서도, 현재 전승되어져 내려오는 모세오경과 복음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 기록들의 연결고리, 즉 이스나드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을 조금 더 깊이 공부하신 분은 이렇게 반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디쓰는 무함마드 서거 약 100년 후에서야 기록되었다. 그렇다면 하디쓰가 책으로 기록되기까지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에 하디쓰 전승고리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좋은 지적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의 말씀이 일반인의 여느 평범한 말이었다면, 그리고 그러한 일반인의 말이 100년 후에 기록되었다면 그 지적이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디쓰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말씀하신 사도의 말씀이기에, 여느 일반인의 말과는 달리 취급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디쓰를 들을 때마다 그 내

용을 암기하였습니다. 하디쓰를 암기하는 것은 훌륭한 경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암기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쳤으며, 그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율법 판단의 기초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전승되어 오는 하디쓰는 사실, 기록이 아니라 '암기'로 전승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슬람 도래 이전의 아랍 세계는 암기문화가 아주 발달해있었습니다. 이슬람 이전 즉, 1400년 이전에 시인들이 노래했던 시의 내용이 암기되어 지금까지도 그대로 전승되고 있으니깐요. 것처럼 아랍 사람들은 암기에 매우 능통했고 암기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꾸란과 하디쓰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계시를 한자 한자 그대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꾸란은 계시 때마다 기록되고 암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디쓰의 경우, 이슬람 초기에는 무함마드 본인께서 그 기록을 금하신 바 있습니다. 꾸란과 하디쓰가 섞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지요. 하디쓰는 꾸란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율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무함마드와 함께 있던 교우들(싸하바)은 그가 하시는 말씀 하나 하나를 외우고 실천의 근거로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외운 하디쓰를 가르치고 해설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암기 문화 및 역사는 성경 기록의 역사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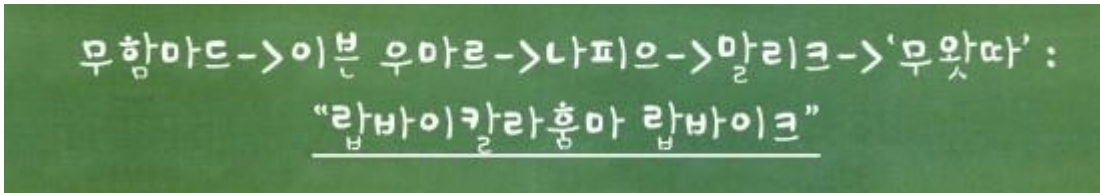
이렇게 철저한 암기으로써 보존되고 전승된 하디쓰가 우마르 이븐 압둘 아지즈(히즈라력 61-101) 시절부터 책으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무함마드께서 돌아가신 후 꾸란과 하디쓰는 명백히 구분되었기에 , 사람들 사이에 암기되고 전승되던 하디쓰가 서적으로 기록되어도 무방하다 판단된 것이지요. 즉, 하디쓰 서적의 출판은 기존에 사람들 사이에 널리 암기되고 공부되고 있던 하디쓰의 기록에 불과한 것이며, 암기에서 기록으로 그 전승의 형태만 바뀐 것일 뿐 그 내용은 하디쓰 서적 출판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잘 보존되고 암기되었던 것입니다.

꾸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꾸란은 계시될 때마다 암기되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함마드께서는 서거 2년 전에 그동안 계시된 꾸란 모두를 라마 단 달에 가브리엘 천사 앞에서 낭송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꾸란은 일상 생활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소리높여 낭송되기 때문에, 만약 예배 인도자가 꾸란을 잘못 낭송하거나 잘못 외운 경우 예배자들이 그 내용을 곧바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로 부터 암기된 꾸란은 무함마드 서거 2년이 채 되지 않아 제 1대 칼리파 아부 바크르의 명령에 의해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되었습니다. 책으로 완성된 꾸란은 실제로는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동일한 내용이 암기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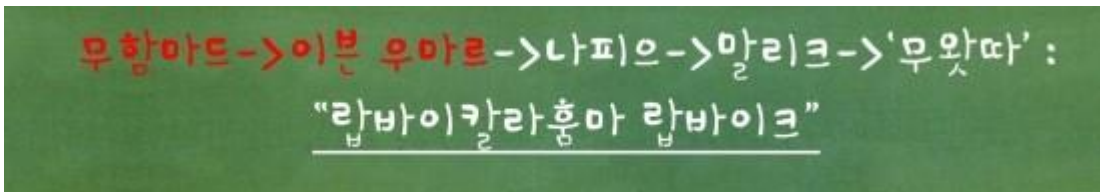
있었습니다. 전승의 형태가 암기에서 기록으로 바뀌었을 뿐, 실제로 전승되는 내용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꾸란이 하디쓰보다 더 연결고리가 강하다'라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왜 꾸란이 하디쓰보다 더 연결고리가 강하다고 할까요? 우리는 강의 초반에 다음과 같은 하디쓰 전승고리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무함마드->이븐 우마르->나피으->말리크->'무왓따' :  
"랍바이칼라훔마 랍바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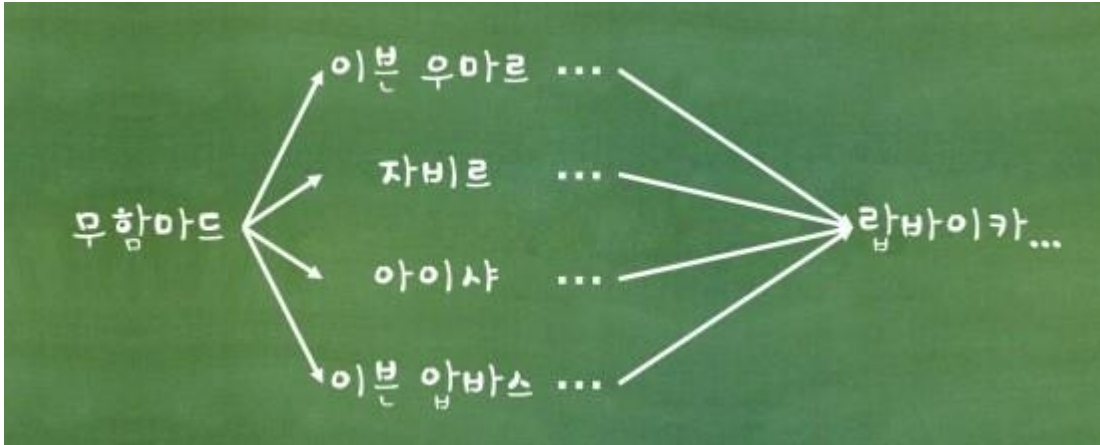
여기서 무함마드-> 이븐 우마르의 전승을 살펴봅시다.



무함마드->이븐 우마르->나피으->말리크->'무왓따' :  
"랍바이칼라훔마 랍바이크"

무함마드로부터 하디쓰 내용을 들은 사람이 이븐 우마르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랍바이칼라훔마 랍바이크"라는 내용을 들은 사람은 비단 이븐 우마르 하나만이 아니라, 자비르 이븐 압둘라, 아이샤, 이븐 압바스 등 다른 분들도 동일한 내용을 전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승고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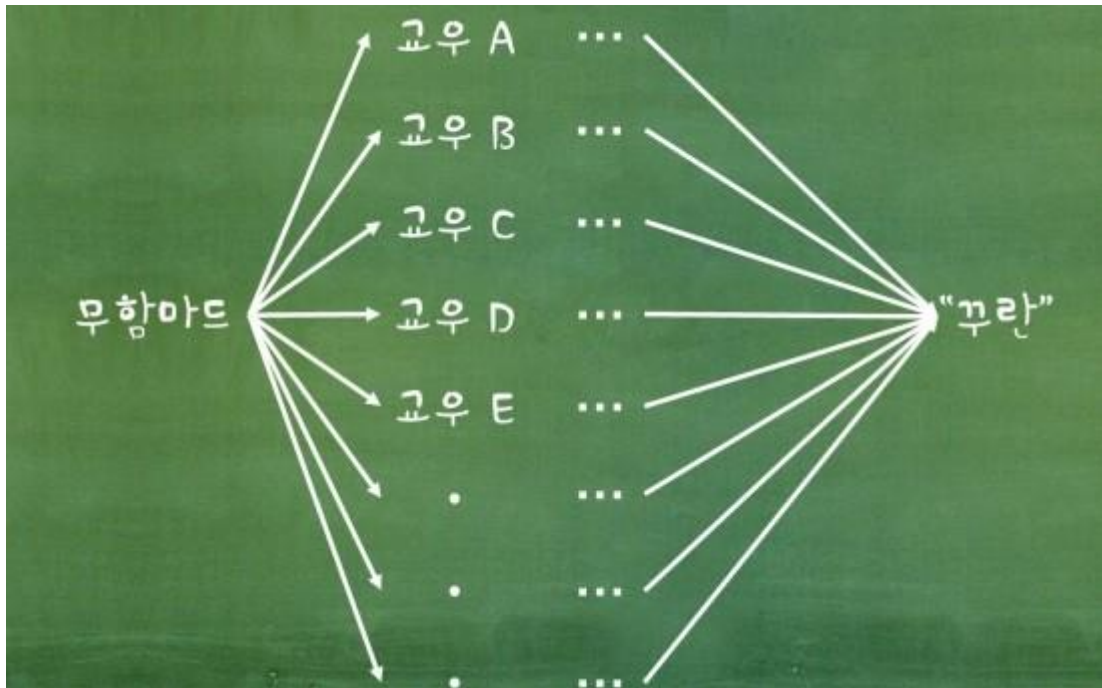


이렇게 네 명이 전하는 하디쓰는 한 명이 전하는 하디쓰보다 연결고리가 더 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위 하디쓰의 경우처럼 많은 전승자를 통해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연결고리에 단 한명의 전승자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함마드께서 하신 말씀을 이븐 우마르 한명만이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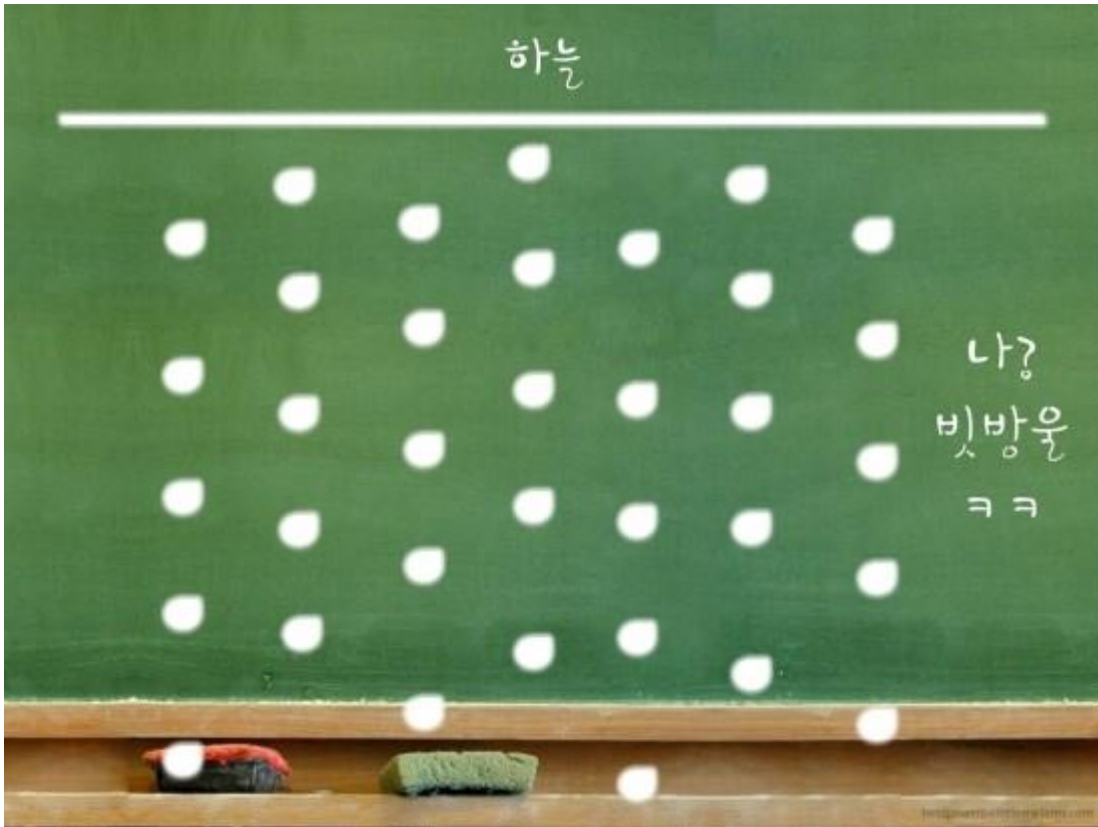
그러나 꾸란은 이러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즉, 꾸란의 연결고리에 전승자 한 명만이 존재하는 경우는 없으며, 꾸란의 모든 연결고리에는 수많은 전승자들이 그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하디쓰 연결고리를 이용하여 꾸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함마드 -> 이븐 우마르 -> 나피으 : "꾸란"

여기서 무함마드로부터 꾸란을 들은 분은 이븐 우마르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동시대에 삶을 살았던 수많은 교우들이 무함마드로부터 꾸란 내용을 듣고 암기하고 암송하였습니다. 교우분들 이후 시절, 즉 나피으가 살던 시절 역시 이븐 우마르 한 명만이 사람들에게 꾸란을 가르친 것이 아니며, 나피으 시절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로 부터 꾸란을 듣고 암기하고 예배시 꾸란을 낭송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꾸란의 연결고리는 실제로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연결고리에 아주 많은 전승자가 있어, 그 연결고리를 의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하디쓰학 전문 용어로 '타와투르'라고 합니다. 빗방울이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묘사할 때 '타와투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즉, 하나의 연결고리에 무수히 많은 전승자들이 마치 빗방울처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동일한 내용을 전달할 때 그러한 연결고리를 '타와투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에, 만약 어떠한 정보가 '타와투르'로 전달된다면 그 정보는 의심할 수 없는 진실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독자 중 한 분이 대학교에서 강의실에 앉아있는데, 친구 한 명이 들어와서 '야~오늘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대'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 누군가가 또 와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대' 합니다. 강의실을 나갔는데 누군가가 '알파고가 완승이라니!'라고 외

칩니다. 학생회관에서도 알파고 승리를 얘기하고, 셔틀 버스에서도 알파고가 승리했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승리를 거둔 소식을 전한다면 '그 날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는 정보는 사실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빗방울 떨어지듯이 연속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전달되는 '타와투르'. 이와 같이 '타와투르'로 전승되는 꾸란이기에, 꾸란은 하디쓰보다 더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스나드 검증법에 의하면 성경은 '다이프'나 '마우두으'한 정보 집합체라고 했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해 하디쓰는 성경보다 더 신빙성있는 전승입니다. 그리고 꾸란은 하디쓰보다 연결고리가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이스나드 검증법에 의하면, **꾸란이 성경보다 더욱 확실하고 신빙성있는 정보라는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신앙을 형성해야 할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아니 틀릴 가능성이 더 많은 정보를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타와투르'로 전달되는 확실한 정보를 선택해야 할까요? 현명한 독자 여러분께

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라 믿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전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